

집념의 평창, 동계올림픽 품었다

2018 개최지 확정...1차 투표서 63표 압도적 승리



이명박 대통령과 평창 2018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관계자 등이 7일 새벽(한국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 유치가 확정되자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평창이 꿈에 그리던 동계올림픽을 마침내 품었다. 평창은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무려 63표를 확보해 경쟁 후보도시인 뮌헨(독일)과 안시(프랑스)를 크게 따돌리고 개최지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2·3면> 평창의 강력한 라이벌로 지적됐던 뮌헨은 25표에 그쳤으며 안시는 7표에 불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후 70년 만에 안방에서 지구촌의 겨울대축제를 치르게 됐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르는 것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은 7년 뒤

인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6일 동안 펼쳐진다.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패럴림픽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 뒤인 3월 9~18일 열린다.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72년 삿포로 대회와 1998년 나가노 대회에 이어 세 번째이며,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이어 6번째로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그랜드슬램' 국가로 등록됐다. 두 번씩이나 유치가 실패했던 평창은 세 번째 도전에서 동계스포츠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뮌헨, 안시와의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 결과



투표인원 수 총 95명 (대반: 48표 이상) /연합뉴스

집전을 펼친 끝에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 특히 IOC의 실세인 토마스 바흐 유치위원장과 양원의 피겨스타 카타리나 비트가 쌍두마차로 나선 뮌헨은 막판까지 평창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위협적인 라이벌이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겠다고 선언한 평창은 명분과 당위성에서 경쟁 도시들을 압도하며 IOC 위원들의 표심을 끌어모아 대승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조양호 유치위원장과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이강희·문대성 IOC 위원, 김진선 특임대사 등이 일관된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전달한 평창은 전통적으로 뒷발인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경쟁도시의 심장부인 유럽과 미주대륙, 오세아니아에서도 고른 득표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최지 투표에 앞서 이날 오전 실시된 프레젠테이션은 뮌헨, 안시, 평창 순서로 진행됐다. 평창은 나승연 대변인이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뒤

조양호 유치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김진선 특임대사, '피겨여왕' 김연아, 문대성 IOC 위원, 박용성 체육회장, 미국 입양아 출신 스키선수 토비 도슨 순서로 마이크를 잡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써는 이례적인 영어 연설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IOC 위원들에게 평창 지지를 호소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경쟁 도시들을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은 평창은 마지막까지 흔들리던 부동표를 흡수해 그토록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저녁 IOC와 '개최도시 계약'을 체결한 평창유치위는 앞으로 5개월 이내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탈바꿈한다. /연합뉴스

금호고속 새노조 9일부터 총파업

기존 노조 임단협 별도 교섭 요구

민주노총 소속 금호고속 새 노조가 9일부터 총파업을 벌인다. 이날부터 허용된 복수노조 사업장 중 전국 첫 파업으로, 새 노조는 사측과 기존 노조가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과는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노사(勞使)-노노(勞勞)간 갈등으로 지역내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6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이날 긴급 공고문을 통해 9일 오전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새 노조는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이후 계속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으나 거부되고 노조 활동 방해와 탄압을 받아왔다"면서 "회사 측은 즉각 단체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은 한국노총 소속 '금호산업 고속사업부'로 노조가 하나였지만, 지난해 7월 임금동결과 타임오프 1만시간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임단협 타결에 반발, 일부 노조원들이

탈퇴해 민주노총 소속 '전국운수산업 노동조합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를 결성한 뒤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해 7월 기존 노조와 임단협을 끝냈다"면서 교섭을 거부해왔다. 이 과정에서 새 노조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고, 금호고속 창사 이래 64년간 이어온 무분규 기록도 깨졌다. 금호 관계자는 "이달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됐기 때문에 새 노조를 인정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7월 합의된 단체협상과 지난달 22일 타결된 임금협상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새 노조의 교섭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5월30일부터 일부 노조원들이 출근을 거부한 채 파업을 벌이고 있어 새 노조의 9일 총파업 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새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현행 노동관계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실제 사측과 교섭을 하기보다는 파업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 뉴스 게재로 일부 지역 배달 지연 양해 바랍니다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도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쁨은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
뮤제오 메리어트 웨딩홀 동성역 동성교차로 상록회관 KB 국민은행 동성동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포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